

# 20세기의 영상 속에 새로 태어난 '제인'

샤롯데 브론테 원작 《제인 에어》

1847년에 씌어진 샤롯데 브론테의 원작소설 《제인 에어》는 영문학사에서 큰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 작품이 갖는 작품성이나 문학적 완성도, 혹은 그녀가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리 브론테, 《아그네스 그레이》를 쓴 앤 브론테와 자매였다는 흥미로운 사실 때문에 그녀가 영국문학사에서 의미있는 작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빅토리아 시대의 억압적인 사회구조에 대항하는 소설을 썼다. 소설 《제인 에어》는 가부장제로 대표되는 그릇된 프티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완곡한 비판과 진정한 사랑을 쟁취하는 한 여인의 파란 많은 삶을 그려내고 있다. 소설을 쓰면서 세 자매 중 어느 누구도 자기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해보지 못했을 정도로 당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인정되지 않던 시기였다. 필명만 보고 문단에서조차 한동안 《제인 에어》의 원작자를 남성으로 생각했을 정도였다.

## 억압적 사회 속에 파란많은 삶

부모가 죽고 숙모의 손에서 길러진 소녀 제인 에어는 숙모의 구박과 사촌들의 학대 속에 자라면서 도전적이고 반항적인 성격의 아이가 된다. 숙모에 의해 공공연히 아동학대가 자행되던 로우드 자선기숙학교에 보내진 제인은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그 학교의 교사가 된다.

성인이 된 그녀는 명문가의 가정교사가 되고 주인인 로체스터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결혼식날 그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녀는 저택을 떠난다. 숙부가 오래 전에 남긴 유산을 되찾아 거부가 된 제인은 정략결혼의 그늘에서 허덕이고 있는 냉소적인 로체스터를 다시 찾아간다. 그의 입장과 사랑을 확인한 제인은 화제로 부인과 돈을 모두 날리고 맹인이 되어 있는 로체스터와 결혼한다.

소설 《제인 에어》는 자전소설의 성격이 짙은 작품이다. 샤롯데 브론테는 실제로 동생 에밀리와 소설 속의 로우드 기숙학교와 비슷한, 규율은 엄격하고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은 엉망인 코윈브리지 기숙학교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그의 두 언니가 이 학교에서



영화 '제인 에어'의 한 장면.

병을 얻어 사망한 아픔은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주인공 제인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던 친구 헬렌 번즈가 영양실조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얻은 병으로 죽는 내용이 소설 속에 포함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또한 샤롯데는 실제로 가정교사 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눈 수술을 받은 아버지를 오랫동안 옆에서 간호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소설에 가정교사 생활이 상세하게 묘사되고 눈을 다친 남자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대목이 등장하는 것이 상상력만은 아닌 것이다.

소설 속에서 제인은 승리를 거둔다. 세상의 편견을 무릅쓰고 자기성취를 하고(그녀는 자신을 학대하던 학교의 선생이 되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암흑으로 몰아넣었던 숙모에게 사죄를 받아낸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차지하고 그 남자를 구원한다(그녀는 로체스터와 연인관계에 있는 잉그램양과 정신병자인 로체스터 부인으로부터 그를 빼앗고, 자신의 재력으로 파산한 로체스터를 돌본다).

## 소설의 사회적 가치에 초점

영화 《제인 에어》에서도 이러한 맥락은 그대로 전개된다. 소설과 영화의 가장 큰

차이는 원작이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사소설의 경향을 띠고 있는 반면, 영화는 20세기의 기준에 맞추어 한 여인의 정체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설이 지닌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소설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소설은 식민주의 시대에 씌어진 작품답게 로체스터의 미친 아내 버사를 영국사람이 아닌 서인도제도 출신에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기괴한 야수”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는 버사를 적어도 야수가 아닌 인간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하고 있다.

대다수 명망있는 원작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 그렇듯이, 《로미오와 줄리엣》《앤드리스 러브》《첼프》 등을 만들었던 프랑코 제피넬리 감독의 이 영화는 원작의 스토리보드를 철저히 답습한다. 감독은 원작의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영상에서만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해 그녀의 정체성을 관객들에게 주지시킨다.

신데렐라 같은 미모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지 않는 원작자의 인물설정에 걸맞게, 결코 예쁘지 않은 성격배우 샤롯데 갠스브르의 연기를 통해 여성사의 기념비적인 인물을 묘사하고 있다.

가부장제로 대표되는 그릇된 프티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완곡한 비판과 진정한 사랑을 쟁취하는 한 여인의 파란 많은 삶을 형상화한 《제인 에어》는 20세기의 영화 속에서 오히려 소설의 한계를 뛰어넘어 원작보다 훨씬 강렬한 저항적 여성상을 그려 보인다.

영화 《제인 에어》는 원작보다 훨씬 강한 저항적 여성상을 그려낸다. 영화 속의 주인공은 19세기 중반의 제인이 아닌 20세기 후반의 제인인 것이다. 예를 들어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기숙학교에 갓 들어간 제인은 다른 사람 몰래 동료인 헬렌 번즈의 모자를 벗기고 초상화를 그려준다. 그러나 규율을 어기고 모자를 벗고 있는 헬렌이 교장에게 발각되고 헬렌의 붉은 곱슬머리가 교장의 기독교사관에 의해 죄악시되면서 그녀들은 머리를 삭

# 과거 속에서 만나는 역사 인물

프랑스 망고 출판사의 '역사시리즈'

장익순  
출판기획가

발당할 위기에 처한다.

여교사가 교장을 만류할 즈음 제인과 헬렌은 서로 결심한 듯 눈을 맞추고 당당하게 가위를 들어 교장에게 건네준 다음 머리를 들이민다. 물론 소설에도 한 여학생의 머리가 문제가 되어 모두 일렬로 서서 머리카락을 받는 부분이 나오기는 한다. 하지만 소설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그리 무게 있는 묘사는 아니다.

하지만 영화에서의 장면은 흡사 20세기 후반에 제작된 걸작 페미니즘 영화인 리들리 스코트감독의 《델마와 루이스》에서 절벽을 마주한 두 여자가 서로 손을 꼭 붙들고 힘껏 액셀레이터를 밟는 마지막 장면을 연상케 한다. 감독이 이 장면을 패러디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 영상의 매력 발휘

소설 《제인 에어》를 원작으로 한 영화중 네번재인 이 영화는 소설의 주인공 제인을 화면을 통해 철저하게 20세기의 제인으로 재창조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을 통해 영상의 매력을 발휘하고 있는 반면 몇가지 단점도 지니고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든 감독답게 두 남녀의 로맨틱한 만남에 치중한 것이 오히려 영화의 이야기 구조를 흐트러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과,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너무 고중에 철저한 나머지 배경과 배우들의 캐릭터가 영화적인 리얼리티보다는 연극적인 '오버액션'에 가깝다는 것이 영화의 의미를 다소 희석시킨다.

—허연 기자

## '책과 영상' 연재 안내

영상매체 시대에 책은 가장 원초적인 소프트웨어로 더욱 빛난다. 뛰어난 원작이 영화화되는 일은 흔하거나 이제 책과 영상은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며 무한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출판저널》은 책읽기와 영상 들여다보기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또다른 세계로 안내하고자 '책과 영상' 연재를 마련, 이번호부터 시작한다. <편집자>

프랑스 망고(MANGO) 출판사에서 간행하고 있는 이 역사 시리즈는 현재 세권이 나와 있는데, 역사 단행본으로서 매우 특이하게도 잡지같은 편집체계를 갖추고 있다. 책 크기도 그렇고 내용이 꼭 96쪽이라서 얼핏 보기에 잡지 같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면 대단히 흥미롭게 되어 있다. 한번 펼치면 읽지 않고는 못배기게 되어 있어서, 우리 기획 편집인들과 독자들에게 꼭 소개해 보고 싶은 책이다.

이 시리즈의 초점은 과거 역사의 중요 인물을 입체적으로 재미있게 구체화하는 것. 구체화 작업은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주요 변동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당시 사회의 풍속, 계층 및 권력 구조, 하다 못해 그가 살았던 시대의 날씨나 물가 상황까지 다양한 미술 편집으로 생생하게 현재화하는 일이다. 더구나 이 책을 기획하고 직접 쓰고 그린 두 사람, 도미니크 고쟁(글쓴이)과 페



망고출판사의 '역사 시리즈' 중 《나폴레옹》과 《루이 16세》편. 한 역사인물의 일상에서부터 그 시대 사회상까지 표현해내고 있다. (자료제공: 예리앙 에이전시)

트릭 앙리(미술 편집인)는 한술 더떠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잡지 특유의 재미인 폭로성 위트와 현장감으로 기사화하고 있어서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이게 바로 이 시리즈의 전략 포인트다.

일부만을 더군다나 흑백으로밖에 소개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시리즈 가운데 제3권 《나폴레옹》의 내용 구성 몇 장면을 직접 보면 이 시리즈의 뛰어난 컨셉트를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뛰어난 역사 시리즈를 우리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초요소를 충실히 해야 한다. 첫번째는 우리 역사를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형상화해내려는 역사학계의 연구 노력, 두번째는 그 연구성과를 다양하게 현재화해내려는 출판계의 노력, 특히 글과 그림과 삽화·사진을 자유자재로 소화한 출판물을 독자들에게 선물하려는 기획 편집인의 창의적인 노력,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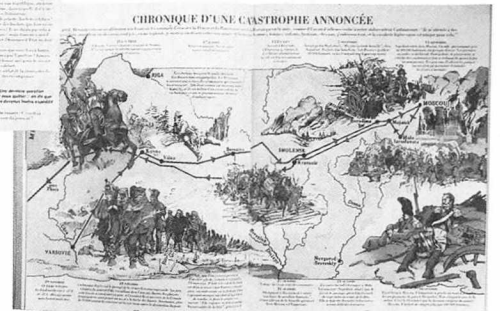
◀ 제목: 보나파르트(나폴레옹의 이름), 행운을 잡을 줄 아는 사람  
부제: 브뤼메르(무월) 18일(나폴레옹이 쿠데타로 집권한 날)에 이르기까지 나폴레옹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기획 포인트: 수상학(手相占術)을 빌어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기까지의 성장과정을 몇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 제목: 오늘의 관점에서 하는 '독점 인터뷰'  
기획 포인트: 기자가 나폴레옹을 직접 만나서, 쿠데타 당시의 심정과 그 뒤 과정의 의문점, 이혼과 재혼 등 사생활 문제같은 의표를 찌르는 물음으로 나폴레옹의 사고방식을 현재 시각과 비교해 보여준다.



▲ 제목: 닭이 우는 새벽에 일어나는 독수리  
기획 포인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나폴레옹의 습관을 코믹한 삽화를 곁들여 보여줌으로써, 영웅의 사생활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준다.



▲ 제목: 러시아 침략의 파국 연대기  
기획 포인트: 절정기의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 공략 과정에서 철저히 패퇴하는 6개월의 과정을 한눈에 읽을 수 있게 보여준다. 침략과 패퇴의 과정은 지도 노선으로, 싸움의 정황은 구역별 스케치와 짧은 해설문으로 실감나게 압축하고 있다.